

모였다 하면 “월드컵” 어디가나 ‘웃음꽃’

■ ‘월드컵 16강’ 광주·전남 축제 분위기 박지성·기성용 등 지역출신 활약 화제 우루과이와 16강전 맞춰 응원 약속도

“16강의 꿈”은 이뤄졌다. 23일 태극전사들이 나이지리아와 2-2로 비기며 월드컵 원정 사상 첫 16강 진출을 일궈내자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이 열광과 환희로 들쭉였다.

기적의 16강 진출로 시민들의 들뜬 기분은 하루 내내 가라앉지 않았다. 직장인·학생 등은 회사·학교에서 만난 동료·친구와 함께 태극전사들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우며 화기에 찬란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축제 분위기 속에서 오는 26일 우루과이와의 일전에 맞춰 회식을 겸한 단체 응원을 약속하는 사람들도 부쩍 늘어났다.

회사원 이모(33·남구 노대동)씨는 23일 서구 풍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거리 응원전을 편 뒤 곧장 출근했지만, 동료와 축구 얘기를 늘어놓는 재미에 피곤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씨는 “이번 월드컵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인 기성용 선수 대단하다”며 칭찬했고, 동료 직원들은 “박지성 선수 역시 주장답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기성용 선수의 선전에 후배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기성용의 모교인 광주 금호고등학교 축구부원 30명은 훈련에 앞서 나이지리아전을 관전했다. 축구부원들은 그리스전과 같이 기성용의 프리킥을 이경수 선수가 첫 골로 연결하자 일제히 환호했다.

금호고 축구부 김경연(18)군은 “기 선배와 같은 포지션인데, 선배처럼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며 “이 정도 실력이라면 8강, 4강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16강 진출 여운은 26일 우루과이전의 열기를 더욱 북돋울 것으로 보인다. 거리응원전의 규모나 주요 위치 등은 조별예선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직장인 박영우(35·광산구 신가동)씨는 “26일 회식 일정을 잡았는데, 퇴근 후 저녁을 겸한 술자리를 가진 후 축구 경기를 관전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말고사 때문에 월드컵 열기를 만끽하지 못했던 대학생들도 시험이 대부분 끝난 이후에 펼쳐지는 우루과이전을 잔뜩 베풀고 있다.

대학생 김모(22)씨는 “시험 때문에 지난 12일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느라 잠만 쉬는 동안 매장에서 그리스전 주요 장면을 본 게 전부”라며 “26일에는 시험도 끝나니 응원전에 동참해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싶다”며 들뜬 표정을 지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기성용 선배 파이팅”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16강 진출 남보가 전해진 23일 광주 금호고 축구부원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선배인 기성용 선수와 대한민국의 선전을 기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주가조작 ‘작전 세력’에 징역 7년

광주지법, 70억대 차액 챙긴 50대 중형 선고

불법 주식거래를 통해 불과 5개월 만에 수십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5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조연의 부장판사)는 23일 각종 주가조작 행위로 70억대 차액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52)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시세 조종의 경우 벌금형 또는 징형유예 판결이 주류를 이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이른바 ‘작전 세력’에 대한 단죄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불법 행위는 증권거래법상의 거의 모든 금지행위를 망라했다”며 “이는 주식 시장을 해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줬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2005년 12월 2주 만에 8억원의 차액을 챙기는 등 5개월간 1220여차례의 ‘작전’을 통해 7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 등은 ‘작전’ 과정에서 사전 담합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통정(通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세 조종의 경우 벌금형 또는 징형유예 판결이 주류를 이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이른바 ‘작전 세력’에 대한 단죄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불법 행위는 증권거래법상의 거의 모든 금지행위를 망라했다”며 “이는 주식 시장을 해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11억 제안 받았다” 주장 호남일보 사주 구속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ARS 여론조사 논란 사건’의 핵심 인물인 호남일보 사주를 전격 구속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23일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특정 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사주 김모(4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ARS 여론조사와 관련, 이용섭 후보 측으로부터 ‘유리한 자술서를 써 달라’는 회유와 함께 11억원의 호남일보 사주를 전격 구속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받은 김씨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보고 김씨를 구속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19분 해질 19시 51분 달돋이 18시 02분 달질 03시 01분

냉방병 주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구분	기온(최고/최저)
광주	19/31℃
목포	18/28℃
여수	20/26℃
완도	18/30℃
구례	19/32℃
해남	18/31℃
장흥	18/31℃
고흥	17/29℃
순천	20/31℃
영광	17/29℃
진도	17/30℃
전주	18/31℃
남원	15/31℃
옥산도	17/2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0.5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0.5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0.5m	목포	00:29	06:52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12:19	17:47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0.5m	여수	07:14	01:31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20:08	13:19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5(금)	26(토)	27(일)	28(월)	29(화)	30(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20/30	22/26	22/28	22/28	21/30	21/31

초등학교에 청원경찰 배치

전국 1천여곳... 아동 성폭행 등 범죄 예방

아동 성폭행 등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막기 위해 연내 전국 1천여개 초등학교에 청원경찰이 전격 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한나라당과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 성범죄 후속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재개발, 다세대 밀집, 유해환경 지역 등에 위치해 있거나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높은 초등학교 1천여

곳을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해 청원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청원경찰은 운동장, 건물 뒤편 등 교내 안전이 취약한 곳은 물론 학교 밖 골목길, 빈집, 공사장 등 학생들의 등하갓길을 상시 순찰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유사시 사법경찰관을 행사할 수 있다.

교과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안전도 진단 체크 리스트를 내려 보내 관할 초등학교의 안전도를

점검하게 한 뒤 이를 바탕으로 청원경찰 파견 대상 학교를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학교에는 청원경찰이 상주하는 경비실이 별도로 설치된다.

학생안전강화학교에는 또 학생들이 자원봉사자의 인도를 받아 집단으로 등하교를 하는 ‘워킹스쿨버스’도 운영된다. 워킹스쿨버스는 같은 방향으로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하나씩 대열에 합류해 집단 보행하는 개념으로 외국에도 도입돼 있다.

또 학부모에게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자녀의 등하교 상황, 방과후학교 출결 상황 등을 통보할 예정이다.

/연철뉴스

“시간강사, 교수 연봉 50% 보장”

안병만 교과부 장관, 2015년까지... 정부 예산 지원

교육당국이 법적으로 교원신분이 아니어서 각종 불이익을 받는 시간강사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개정과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시간강사 문제는 대학교 정부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해법을 논의할 때가 됐다. 시간강사를 강의전담교수로 전환해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해주는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장관은 “대학들이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뽑아 그분들을

강의전담교수로 채용하면 어느 정도 처우개선 효과는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의전담교수 규모를 늘려가는 대학에는 다양한 편의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립대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 “시간강사가 강의전담교수가 되면, 조교수 등 전임교수 트랙과는 차별이 존재하겠지만, 신분이 생긴다. 최소한의 생계유지하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것이 우리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또 국립대의 시간강사로 단가를 인상하고 사립대의 강사료 단가에 대한 최저기준 권고제 등을 마련해 5년 이

내에 전임강사 대비 평균 연봉을 현재의 25%에서 50%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연철뉴스

6·25 60주년 기념식

광주·전남 재향군인회

광주·전남 재향군인회(회장 성해석)는 25일 오전 11시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 빛고을 시민문화관’(옛 구동체육관)에서 ‘6·25전쟁 60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전남에서는 이날 오후 2시 화순군 화순읍 ‘하늬문 문화스포츠센터’에서 각각·단체장과 향군회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전쟁 6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교육청 7월 인사 예정대로 단행

전남은 5급이상 유보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은 새로운 교육감 당선자와 협의 논란 등을 빚었던 7월 정기인사를 예정대로 단행한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5일 일반직과 기능직 118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대상은 3급 2명 등 5급 이상 간부직 7명, 6~8급 중하위직 104명, 기능직 7명 등이다.

5급 이상 승진자는 보직 인사까지 함께할 예정이지만 6급 이하 나머지는 9월 지역교육청 선진화 방안에 따른 조직개편이 완료된 후 보직 인사를 하기로 했다. 정년퇴직과 공모연수 등 빈자리를 채우는 소폭 수준이다.

/박진기기자 lucky@kwangju.co.kr

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 교육감 임기가 4개월 이상 남아있는 시점에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임기를 마무리하며 조직 안정 등을 위해 정기인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24일 6급 이하를 대상으로 승진 및 정보인사를 실시한다. 대상자는 6급 33명과 7급 43명 등 76명이며 5급 이상 간부급 인사는 장만채 교육감 당선자가 취임하는 7월 이후 하기로 했다.

한편 장만채 시 교육감 당선자 측은 시 교육청에 7월과 9월 일반직 및 교원 정기인사 등의 사전 협의를 요구, 논란을 빚었으나 최근 안순일 교육감과 장 당선자가 만나 광주교육발전을 위해 서로의 뜻을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일단락됐다.

/박진기기자 lucky@kwangju.co.kr

미성년자 폭행 성매매 강요

북부경찰, 30대 영장

광주북부경찰은 23일 미성년자를 협박·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차모(33)씨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 2일 밤 9시경 광주시 북구 신안동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19)양을 성폭행한 뒤 협박,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자를 모집해 이양에게 성매매를 시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청소년 3명에게 못된 짓을 벌였으며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축구할때 깨워라” 거절에 아내 폭행

○23일 새벽 열린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과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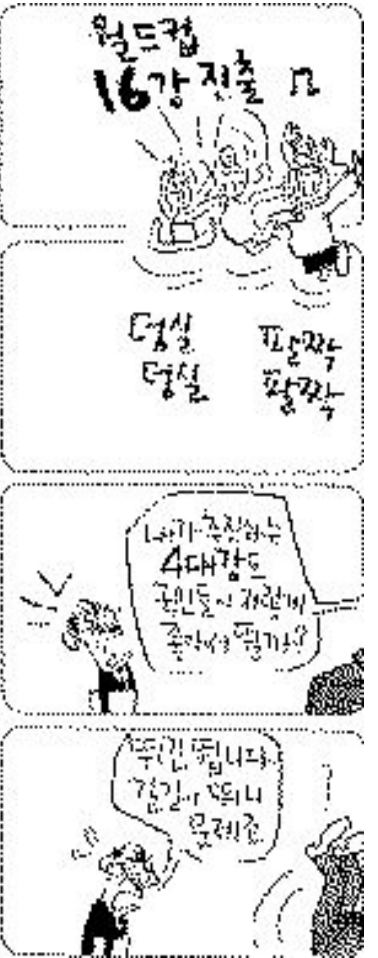
이제리안 중계를 시청하기 위해 아내에게 깨워달라고 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폭행한 못된 남편이 경찰서청했다.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황모(55)씨는 지난 22일 밤 9시경 광주시 동구 소재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정모(53)씨에게 “지금 잠네니 새벽 3시에 깨워달라”고 부탁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밀치고 목을 조른 혐의.

○경찰에서 정씨는 “축구 중계를 보고 싶으면 본인이 알아서 일어나지, 왜 내게 깨워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정.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나원침 (8055) 김장두



젓소·육우 ‘한우 둔갑’ 판매

광주·전남 음식점 22곳 적발

젓소와 육우를 한우 쇠고기라 속여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18일까지 광주·전남지역 음식점 쇠고기 식육표기상태를 집중 점검해 젓소를 육우(고기를 얻기 위해 살찌운 젓소) 또는 한우로 판매한 업소 15곳,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업소 7곳 등 모두 22개 업소를 적발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들 업소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광주시 북구 A식당은 메뉴판에 쇠고기 종류를 육우로 표기해놓고 젓소의 양지·사태 4700kg를 곱탕·수육으로 조리, 5억30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시의 D식당은 육우 등심을 한우 생고기·육회비빔밥 재료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